

'새해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정책 등 담은 책자 발간... 교육·복지 등 8개 분야 총 66개 항목 담아

전주시가 올해부터 출산율을 높이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시술비와 난임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출산 기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시작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 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확대 운영하는 등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갖출 계획이다.

전주시는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등을 담은 '2024년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하고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세제·부동산 6건

△교육·보육·가족 7건 △안전·행정 4건 △보건·복지·환경 24건 △문화·관광 9건 △경제·사회적경제 4건 △국토·교통 4건 △농·축·수산·식품 8건 등 총 8개 분야 66개 항목이 담겨 있다.

먼저 세제·부동산 분야를 살펴보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투자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의 경우, 청년들의 학업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금융 교육·상담을 지원하는 '함께 두배자금' 지원 대상규모를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소득기준

이 완화되고, 지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수당도 인상됐다.

보건·복지·환경 분야에서는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7~36주 이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또,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여드름 치료를 적시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1회 5만 원,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일률 후 배출제가 확대 실시된다.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통합문화이용권을 1인당 13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을 1인당 월 10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월 11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완산도서관과 서신도서관, 쪽구름도서관이 새롭게 변신 후 재개

관하는 등 시민들이 다양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제·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창업·중소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전주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가 들어서고,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통합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여기에, 전주·완주 간 지역회話が 상호 유통된다.

국토·교통 분야의 경우 신규시책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전화 또는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는 '전주사랑콜'이 운영되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1인당 연 1회 10만 원의 교통비가 지원된다.

끝으로 농·축·수산·식품 분야에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단가가 인상되고, 전락직불금 단가가 인상되는 등 직불제 지원이 확대된다.

/김옥기기자



전주시설공단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2주간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전주시설공단, 설 명절 대비 시설 안전 점검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설 명절을 맞아 대대적인 시설 안전 점검에 나섰다.

공단은 오는 31일까지 2주간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물론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공공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 기간 소화기 작동 여부 등 소방 시설의 상태와 주요 구조부의 손상 또는 균열, 누수 등의 결함 발생 여부, 전기와 소방, 가스 등 분야별 안전성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게 공단의 계획이다.

공단은 매달 진행되는 '안전 점검의 날'의 일환으로 이번 안전 점검을 추

진한다. 안전 점검의 날은 시기별로 취약한 안전 요소를 고려해 테마를 정하고 진행되는 안전 캠페인이다.

주요 월별로 1월은 '설 명절 대비 안전 점검 및 환경정비', 2월은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 6월은 '우기 대비 시설점검', 9월은 '추석 명절 대비 안전 점검 및 환경정비', 11월은 '동절기 대비 시설점검 및 동파 방지 활동'이 테마다.

구대식 이사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 모두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 점검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없애겠다. 안전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합심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사표써" 직원 폭행·강요 혐의 순정축협 조합장 구속

순정축협 조합장이 직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합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폭행·치상·강요 등의 혐의로 전북 순정축협의 60대 여성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11시께 순창군의 한 음식점에서 임직원들에게 '사표를 쓰라'는 폭언과 함께 신발 등으로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A씨의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임직원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A씨는 술이 취한 상태였고,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 점검이 잘 안 됐다는 이유로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조합장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았고 사과하려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뉴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의정실에서 이기동 의장과 임영옥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졌다.

"전주시에 나눔의 꽃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특별회비를 포함한 지난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남(18일) 전주시의회는 의정실에서 이기동 의장과 임영옥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사무처장,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박현희 완산지구 협의회장, 리태원 덕진지구 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특별회비를 포함한 역사회 봉사,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이 의장은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헌신적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적십자사의 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전주시에 나눔의 꽃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 처장은 적십자 특별회비 증을 전달하며 "적십자 특별회비로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선 전주시의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십자 는 도움의 손길 필요할 곳에 늘 함께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옥기기자

쾌적하고 안전한 설 연휴 만든다

전주시 덕진구, 설 연휴 종합대책 수립 위한 과동장 회의 개최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봉정)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효과적인 행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과동장 회의를 가졌다.

지난 19일 덕진구청 3층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덕진구청장과 과·동장 등 27명이 참석하였으며 주요 안전으로는 설 연휴 동안 쾌적한 도시미관을 제공하기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 강화, 6개 분야에 걸친 종합대책 수립, 그리고 동장들이 주도하는 명절 맞이 현장행정이 주요 포인트로 논의되었다.

먼저 덕진구는 2월 9일부터 12일까지 덕진구청 3층 상황실 및 각 대책반 별 사무실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설 연휴 동안 종합상황실을 통해 신속한 민원응대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 4개 분야(교통, 청소, 공원, 도로) 및 특별 2개 분야(이웃사랑·지역경제, 시민불편)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각 동장이 주도하는 명절맞이 현장행정을 통해 관내 16개 동의 취약지역과 복지사각지대에 집중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움 손길을 확장할 계획이다.

김봉정 덕진구청장은 "이번 대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시민 여러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민다. 한국 누정의 대표라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